

인천지역 청소년의 비만정도 및 혈중 콜레스테롤과의 관계

인하의대 소아과, 임상병리과, 인하대 식품영양과. 김명현*, 최연호, 김순기, 손병관, 배수환, 장경자

목적: 경제발전과 더불어 영양과잉이 문제되고 있으며 비만한 소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. 인천지역에서는 1996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만아동을 조사한 경우가 있으나 아직 중, 고,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없다. 이에 인천의 도시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및 체중미달의 유병율을 알아보고 비만도와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청소년기의 영양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2000년 5월 인천지역의 3개의 중학교, 5개의 고등학교, 인하대여대생 총 1456명(남:여=685:771)을 대상으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고 혈액을 채혈하여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영양섭취상태를 조사하였으며, 신체계측후 1998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측정한 한국 소아 및 청소년의 신장별 체중 백분위의 50 퍼센타일 값을 표준체중으로 하여 비만도를 측정하였다.

결과: 1) 인천지역 청소년 비만 유병율은 11.7%(남:여=12.1:11.3)였고, 이 중 경도비만이 6.5%, 중등도 비만 4.6%, 고도비만은 0.5% 였다.

2) 농촌지역의 청소년 비만 유병율은 10.7%(남:여=8.5:12.5), 도시지역의 청소년에서 12.3%(남:여=14.2:10.4)로 도시지역 청소년의 비만 유병율이 더 높았다. 농촌지역은 여자에서 더 높았고, 도시지역은 남자에서 더 높았다.

3) 비만 청소년 170명을 연령별 분포로 볼 때, 12세부터 나이가 많아지면서 증가하다가 16세에 29.4%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그 이후로는 감소하였고 17세에 11.5%를 보였다.

4) 체중미달 청소년의 유병율은 22.2%(남:여=27.2:17.8)였으며, 중증 체중미달은 2.9%(남:여=3.7:2.1)였다. 남학생에 있어 체중미달은 농촌지역에서 34.1%, 도시지역에서 22.9%로 농촌지역에서 더 많았다. 여학생에 있어서는 농촌에서 19.5%, 도시에서 16.6%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연령별 분포는 12세에 37.8%(남:여=28.8:53.2)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, 17세에 12.2%(남:여=15.6:9.5)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으나, 18세 이상에서도 남자 23.5%, 여자 14.6%에서 관찰되었다.

5) 200 mg/dl이상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비만 청소년에서 6.2%, 대조군에서 4.8%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, 콜레스테롤 170 - 200 mg/dl 인 경우는 비만군에서 22.2% 대조군에서 16.9%로 서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.

결론: 인천지역의 청소년 비만은 조사자의 약 12%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체중미달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. 따라서 청소년 영양에 대해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럼으로써 성인병을 예방하고 한편 영양불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생각된다.